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OC 한인교계 연합, 3050 차세대 목회자 세운다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심상은 목사 ©기독일보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OC영적대각성 다니엘 새벽기도회
21명의 차세대 목회자 선정 연합집회 설교 기회 제공
8월 1일부터 24일 새벽 5시 30분, 갈보리선교회

오렌지카운티 한인교계 지도자들이 차세대 한인 목회 지도자 발굴과 영적 리더십 개발을 위해 '3050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OC영적대각성 다니엘 새벽기도회'를 개최한다.

갈보리선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OC영적대각성 다니엘 새벽기도회는 OC 지역 한인 교계단체들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21명의 30~50대 차세대 한인 목회자가 24일까지(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5시 30분) 특별새벽예배에서 설교하게 된다.

설교자들은 1962년 8월 1일 이후 출생한 3050 세대 목회자로 신학의 건전성과 목회의 진위 등을 살핀 후, 교단 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차세대 목회자들에게는 새벽예

배 설교 후 일정액의 강사료를 전달해 용기를 북돋을 계획이다.

이번 기도회는 중대형 교회를 이끄는 OC 지역의 한인 목회자들이 지역에서 목회하는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한인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장로협의회, OC여성목사회 등이 협력하고 있다.

OC교회협의회 회장 심상은 목사는 "지역 한인 목회들끼리도 교단과 교세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존재해 왔었다"며 "교계지도자들과 교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차세대 목회자들에게 대형집회 설교의 기회를 주고, 새로운 도전과 자신감을 얻게 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OC 교계는 기도회 마지막 날인 8월 25일(목)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위드코로나 시대에 목회적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OC지역 한인 목회자 세미나를 개

최하고 목회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는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나서 각자의 목회 경험을 나누고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목회자 세미나는 새벽기도회 설교자 21명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지역에서 선후배 목회자과의 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선물을 증정된다.

OC영적대각성 다니엘 새벽기도회는 일회성을 끝내지 않고 매년 이어갈 예정이다. 예산은 오는 OC장로협의회 골프토너먼트 수익금을 기초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부족한 예산은 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미 대법원, '낙태' 이어 '동성결혼' 판례도 뒤집을까?

얼마 전 낙태가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며 지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던 지난 2015년의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도 뒤집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정치권 등 현지에선 연방대법원이 오버거펠 사건도 재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주 미국 하원에선 '오버거펠 대 호지스' 판결을 성문화 한, 이른바 '동성결혼 존중법'이 통과됐다. 민주당 하원의원 220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47명이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하는 결혼 보

호법 대신 동성결혼 존중법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법안의 하원 통과는 지난 6월 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판례인 '로 대 웨이드'를 뒤집은 데 이어, 오버거펠 사건도 재검토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

지난 5월 언론에 유출된 '도브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Dobbs vs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 초안에서 클렌스 토마스 연방대법관은 미국 헌법에 낙태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근거인 '실질적 적법 절차' 개념이 "합법적인 허구"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CP는 전했다.

토마스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오버거펠 사

건을 포함한 "대법원의 실질적 적법 절차 판례를 모두 재검토하고 싶다"며 법원은 "다른 헌법 조항이 실질적 적법 절차 판례가 만든 무수한 권리를 보장하는 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의견이 낙태와 관련이 없는 판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수 의견문에 동의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럼에도 현지 정치권에선 재검토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는 입법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동성결혼 존중법은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이며, 상의의원 100명 중 60명(민주당 50명, 공화당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



미국 연방대법원 ©Anna Sullivan/unsplash

다. 지금까지는 최소 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CP는 전했다.

김진영 기자
[2면에 이어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 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벼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배크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소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 대면·전화상담 예약 |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벼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 / 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소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배크럽시

배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하지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한) 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한) 코네티컷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직원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 재미발명가협회 고문 변호사
(전) 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월드미션대학교, 코리아타운 시니어센터 MOU 체결

현장실습·취업 정보 연계 및 지역사회 서비스 교류 임상경험 기회 확대, 사회복지 소셜워커 양성 협력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와 코리아타운 시니어센터(센터장 박근준대표)가 한인 사회 노인복지 분야의 공동 발전과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9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시니어타운 코리아센터 박근준 대표, 공명철 프로그램 디렉터, 백미경, 이미영 소셜워커가 참석했으며, 월드미션대학교에서는 임성진 총장, 신선묵 부총장, 최윤정 대외협력처장, 사회복지학과 이현아 교수와 김재원 교수가 자리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월드미션대학교는 코리아타운 시니어센터(Korea Town Senior Center)를 비롯해 크렌셔 커뮤니티 센터(Crenshaw Community Center)와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현장실습 협력, 취업 정보와 연계 교류, 기관장 추천으로 입학시 산학협약장학금 제공, 지역사회 서비스 교류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은 현장실습 기회를 확충하고 전문적인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양 기관은 사회복지분야 소셜워커 양성을 위한 통로를 마련하고, 연구 교류 확대를 위한 시도로서의 의미가 크다.

임성진 총장은 “노인복지 사역기관과 협약을 맺게 되어 뜻 깊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서로가 협력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하는데 큰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준 대표는 “이번 협약은 한인사회에 소셜워커를 배출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한민족의 지위를 높이는 일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현아 교수는 “복지 분야의 지역사회 기관과 적극적인 업무협약 체결을 환영한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월드미션대학교, 코리아타운 시니어센터 업무협약식

며 “사회복지 전문성과 임상 현장경험, 영적 성숙을 바탕으로 한 소셜워커가 더 많이 배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월드미션대학교는 1989년 3월 27일 임동선 목사가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해 세계선교를 위한 인재양성과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한 선교사, 목회자, 기독교 사역자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기독교 학문 부문 최고의 인가기관인 ABHE와 ATS의 인가를 받았으며, 신학, 음악학, 상담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예배학, 글로벌 리더십의 전공을 두고 캠퍼스 및 온라인교육(수료과정, 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나성한미교회 “Blessings Rose Day” 지역 주민과 행복 나눠



나성한미교회 행복나눔 초청 주일 ©기독교일보

나성한미교회(담임 신용환 목사)는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안민 교수(전 고신대학교 총장)를 초청해 2022 Blessings Rose Day로 “행복 나눔 초청 주일” 행사를 가졌다.

팬데믹으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Blessings Rose Day는 엘몬테 지역주민들과 팬데믹 기간 교회에 나오지 못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던 성도들이 본당을 가득 메웠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안민 교수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며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고 권면했다.

안 교수는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면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릴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주셨다. 믿음의 사람들의 길은 더 힘들고 어려운 곳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 주님과 함께 진정한 행복한 길을 걸어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첫째 날 토요일 새벽에는 “나의 찬송을 부르라”는 주제로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이겨내며 찬송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의 시간을 가졌다.

이인규 기자

효사랑 선교회 시니어대학 가을학기 개강

8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
18주간, 선착순 20명 모집

효사랑 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시니어대학이 가을학기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시니어대학은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 받는 어르신으로 살자”의 학훈으로 매주 화요일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업이 진행된다. 가을학기는 8월 16일 화요일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해서 18주 동안 진행된다.

커리큘럼으로는 △성경과노라마△

음악 △건강체조 & 힐링댄스 △두뇌훈련 아트△캘리 그래피 △클레이 아트 △스마트 폰 등으로 다양하며 등록금은 매월 50달러다. 선착순 20명.

김영찬 목사는 “인생의 줄업을 앞두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보아야 한다”며 “평생 일만하다 노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나의 정체성을 찾아 노인이 아닌 존경 받는 부모로서 후손들에게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 주어야 한다”고 독려했다. 관련 문의는 전화(714) 833-2710, (714) 670-8004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1면 “미 대법원, ‘동성결혼’ 판례도 뒤집을까?...” 이어]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5년,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의 찬성과 4명의 반대로 동성결혼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정의한 당시 4개 주의 헌법 수정 조항을 폐지시켰다.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대법관은 앤소니 케네디·소냐 소토마요르·엘레나 케이건·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었다.

나머지 존 로버츠·안토닌 스칼리아·클라렌스 토마스·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표를 던졌던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지난 2018년 퇴임했고, 역시 찬성표를 던졌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과 반대표를 던졌던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사망했다. 이에 닐 고서치·브렛 캐버노·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임명됐는데,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은 6명,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은 3명이다.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교수진		초청 강사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 3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북한 교회 재건과 부흥에 미주한인교회 동참 촉구

통일소망선교회 LA지역 북한선교 복음 컨퍼런스 개최

“오늘 이시간도 탈북 동포들은 중국과 제3국에서 고립된 가운데 가혹한 인권 유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립을 풀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탈북 동포들을 위한 구체적인 행함이 절실합니다.”

통일소망선교회(대표 이빌립 선교사)가 지난 31일,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북한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미주 지역 한인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이빌립 선교사, 서예레미야 선교사, 신영도 선교사, 심양섭 목사, 한성민 선교사 등 북한 선교 전문가들이 나서 교육 선교, 북방선교, 남방 선교 등 통일소망선교회의 사역을 중심으로 북한 선교의 실제적 방법과 통일에 대한 준비를 소개했다.

통일소망선교회는 북한 교회의 회복과 재건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지하교회 성도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북한 복음화를 위한 선



나침반교회에서 진행된 통일소망선교회 LA지역 북한선교 복음 컨퍼런스 ©기독교일보

교사 파송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의 신앙 정착을 위해 ‘예수 제자 훈련원’, ‘탈북 신학생 멘토링’, ‘탈북 목회자 정기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인권유린과 성적학대로 고난 받는 탈북 여성들을 위한 ‘평강공주 사역’, 중국 남성과의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을 위한

‘탈북 어린이 긍휼 사역’, ‘북한지하교회 양육 지원’, ‘성경배달’, ‘제3국 탈북자 구출’ 등을 주된 사역으로 삼고 있다.

이빌립 목사는 “북한은 두 개의 사회구조가 있는데 하나는 여전히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 정권이고, 다른 하나는 어둠의 영에 갇혀 고통 받고 신음하는 북한의 주민들”이라며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땅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에 대

해서는 분노할 때 그 땅이 회복되고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어 “눈 앞의 현실은 어둡고 참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북한 땅에 교회를 회복하실 것”이라며 “북한 교회 재건에 큰 동력이 될 중국과 제3국,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 동포들에게 미주 한인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탈북민 대안학교인 남북사랑학교 교장인 심양섭 목사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인 탈북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시장과 함께 성장해 북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약하고, 해외 미디어의 영향으로 당에 대한 충성심도 적다”며 “중국,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복음 안에서 통일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히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중국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10만명(선교회 추산)의 탈북 여성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평강공주 사역이 주목을 받았다. 탈북 후 인신매매로 팔린 탈북 여성들은 과로와 굶핍, 병마로 인간성이 상실된 채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 사역은 미주에서도 동참이 가능하다.

김동욱 기자 문의: 데이빗 김 목사 (314)625-0404

광복 77주년·건국 74주년 남가주 기념식, 대한민국 정체성 바로 알린다



준비위원회들이 협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기독교일보

남가주 한인기독교단체와 애국보수단체가 연합으로 광복 77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74주년 남가주 기념 행사를 준비한다.

오는 14일(주일) 오후 4시, 가든스위트호텔 2층 연회실에서 진행되는 기념 행사는 1부 광복 77주년 기념 예배에 이어,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을 강사로 건국 74주년 기념 강연회로 치러진다.

이날 기념예배와 강연회에서는 대한민국 광복의 의미와 건국의 배경이 자세하게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을 바탕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알리고, 남가주 한인들과 대한민

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김영구 목사는 “대한민국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주축이 되어 기독교 국가 이상을 가지고 건국됐다”며 “올해 기념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건국 정신을 바로 알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가주 모든 한인이 하나로 연합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16일(화) 오전 11시에는 용수산에서 재향 군인회 주최로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의 안보강연회가 진행된다. 김동욱 기자 문의: 310)404-6219 김영구 목사

최혁 목사 “팬데믹 시대의 어려움, 하나님의 테바(תֵּבָא) 믿어야”

지난 30일 오후 7시30분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린 2022년 뉴욕 할렐루야대회 3일차 집회에서 강사 최혁 목사(LA주안예교회)가 팬데믹 시대의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 믿은 자 안에서는 실패와 좌절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윤행하심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을 주문했다.

최혁 목사는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행27:6-8)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초대교회 사도들을 비롯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눈 앞에 닥친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택 뜻으로 인도하시는 큰 손길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실제 자신이 겪은 생생한 간증들도 함께 전했다.

최 목사는 이날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는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고 할렐루야대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크게 ‘아멘’으로 화답했다. 본인의 간증도 메시지에 적절히 섞으면서 감동을 더했다. 또 간간히 재미있는 멘트로 현장의 분위기를 풀어주기도 했다.

최 목사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큰 손길과 인도하심을 ‘테바(תֵּבָא)’로 설명했다. 방주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는 구약성경에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로 각각 나온다. 최 목사는 “바울은 당시 히버드에 해당하는 코스에서 교육을 받은 수재였지만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 아바리아에서 3년, 또 예루살렘에서 매우 긴 기간인 10년간을 칩거했다”면서 “그는 그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깨달았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복음 안에서 완전히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바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



최혁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님의 깊은 생각이 있었다. 이 테바를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원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오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컨설턴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www.davidlimlaw.com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변곡점 맞아 회복과 도전, 결단하는 CBMC 한국대회 되길”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하는 기독교 실업인과 전문가들의 최대 축제인 CBMC 한국대회(대회장 김영구 한국 CBMC 중앙회장, 준비위원장 김현수 부산총연합회 회장)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8차인 CBMC 한국대회의 주제는 2022년 CBMC 사역 주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사도행전 3장 6절)이다. 코로나19와 함께 급변하는 변화의 시대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에 의지해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고, 주변의 어려운 이들의 손도 잡아 일으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이번 대회는 CBMC 국내의 회원을 비롯하여 ‘비신자 전도대상자’인 VIP 참가자, 지도 목사, 청년 창업가 등 3,300여 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워킹(Walking)’을 주제로 한 첫째 날(15일)은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특히 비신자 전도대상자들을 마음으로 품고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될



김영구 중앙회장은 “변곡점을 지나는 시기에 이번 한국대회는 상당히 중요한 대회가 될 것”이라며 CBMC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요청했다. ©이지희 기자

예정이다. 개회예배에서 김문훈 목사(포도원교회)가 말씀을 전하며, 이은상 목사(WMC선교회 선교사)의 ‘은혜의 70년, 첫 이야기’, 광복절을 맞아 영광복 선교사의 ‘광복, 다시 찾

은 빛’, 탤런트 김수미 씨의 간증 후 저녁 만찬이 열린다. 저녁집회 1부는 김학중 목사(꿈의교회)가 말씀을 전하며, 2부 VIP 초청 문화 페스티벌에서는 임미선 교수(유니세프 합창단, 마하나임 합창단 총감독 겸 지휘자)

가 찬양간증을 한다.

‘점핑(Jumping)’을 주제로 한 둘째 날(16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말씀과 특강, CBMC 사역 열매 등을 나누며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과 변화를 결단하는 시간으로 준비했다.

‘프레이징(Praising)’을 주제로 한 마지막 날(17일)은 대회 기간 받은 말씀과 은혜를 통해 일터사역자로서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일터로 파송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제48차 CBMC 한국대회 대회장 김영구 한국CBMC 중앙회장(서울장위제일교회 시무장로, ㈜엘림비엔에스 대표이사)은 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12일 서울 마포 한국CBMC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변곡점을 지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번 한국대회가 시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한다”며 “참석하시는 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게 되는 대회가 되면 좋겠다”고 기대를 전했다. 이지희 기자

“강제복송 2명, 탈북자 도우려다 발각돼 귀순”

탈북자 중심 북한인권단체들, 기자회견 열고 전면 재조사 촉구

북한인권단체들이 2019년 11월 귀순했다가 판문점을 통해 강제복송당한 2명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서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탈북민강제복송반대국민연합, 북한

기독교총연합회, 강제복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은 22일 오전과 오후 각각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및 국민의힘 당사 앞,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복송’ 조치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복송 당시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권의 친인공노할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

라고 했다.

이어 “탈북자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탈북어민들은 구두와 자필로 명확하게 귀순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들이)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말만 믿고, 상세조사도 없이 불과 며칠 만에 복송시켰다. 설령 16명 살해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귀순한 두 명의 청년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권이 헌법과 국제조약을 무시하고 자국민을 잔혹한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 소식에 정통한 한 탈북민이 이들이 흉악범이 아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 탈북민은 “귀순어부는 원산 갈마지구 돌격대 소속 노동자로서, 무자비한 노동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김정은 비판격문을 내건 것이 발각되어 어선으로 탈북한 것이며, 이는 원산지에서 알려진 얘기”라고 말하고 있다.

또 “탈북 어민들은 동료 16명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탈북자 16명의 도주를 도와 주다가 발각돼 귀순했다는 주장도 2019년 당시

부터 나왔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귀순어부 두 명은 사악한 김정은 정권에 맞선 정의로운 청년들이었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스카마호 선상살인사건에서 11명을 살해한 조 선족 살인자까지 변호했던 인권변호사라고 자처한다. 중국인은 변호하고 자국민은 사지로 내몬 것에 대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안대를 한 채 포승줄에 묶여 도살장으로 끌려가듯 끌려가는 모습과, 판문점 북쪽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한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로 치를 떨고 있다. 본 건 강제복송은 문재인 정권이 자국민 수호의지도, 헌법 수호의지도 없는 비굴한 정권이며,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공범임을 여실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강제복송사건에 대해 국제사회도 격노하고 있다. 미의회 인권위원회 의장마저도 그 참혹한 복송사건을 보며, “이는 ‘북한과 문 정권의 공모’이며, 누가 명령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송경호 기자

총신 신대원 女 졸업생 18%, 예정 합동 떠나 목사 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여성 10명 중 2명 정도가 목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신대가 속한 예정 합동총회는 ‘여성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총신대 신대원 여동문회가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 동문 224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 ‘2022년 여동문화 사역현황 실태조사’다.

그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직분을 묻는

문항에 전도사가 50%로 가장 들 많았고, 사모 20%, 목사 18%(정확한 수치는 목사 17.8%, 강도사 0.4%), 선교사 6% 순이었다.

목사안수를 받은 이들에게 어떤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는지 묻자, 58%가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갑)라고 답했다. 그 외 예정 합동개혁총회와 예정 백석총회가 각각 13%, 예정 보수개혁총회와 국제 독립교회연합회(웨이크)각 각각 5%였다.

‘여성목사 안수’가 필요하지 않은 결과, 7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3%에 불과했다. 25%는 응답하지 않았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213)487-5437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www.e-NCA.org



74년전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에 의해 건국된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이다!

해방(광복) 77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74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행사

일시 : 2022년 8월14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한인타운 가든스윗 호텔 (7th & 웨스턴)
주제 : 대한민국의 정체성/미래의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로 가야한다!
강사 : 권영해 장로/(사)국가원로회의 공동의장/(사)대한민국 통일건국회 회장/
 제30대 국방부 장관/제 21대 국가안전기획부장
식대 : \$30/ 선착순 150명에게 200불 상당의 기념품 증정

1. 지도자 초청 만찬

일시: 8월 15일(월) 오후 12시
 (한인타운 주요 지도자 및 언론사 초청 만찬/호스트: 김향로 의장)

2. 안보 강연 및 대한민국민회 방문

안보 강연 일시: 2022년 8월 16일(화) 오전 11시 / 재향군인
<대한민국민회 방문/일시: 오후 3시>
 상기와 같이 금번 해방(광복)과 대한민국 건국 74주년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축하하여 주시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행사 주관

미주한인재단LA/ 남가주건국대통령 이승만 기념사업회/
 세계기도모임 서부 지역/ 대한민국 역사 지키기 운동본부

■ 주최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KACC(한미기독교연합회/회장 민승기)/미주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회장 이재권)/
 미주3.1여성동지회(회장 그레이스 송)/ 세계기도모임 서부지역/ 남가주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사업회/
 대한민국역사지키기운동본부/ 미주한인재단LA / 미주한인사 총연합회(정종오 회장) / 대한민국민회(윤효신 이사장)/
 재향군인회(위재국 회장) / 청교도운동본부(강순영 목사)/ 미주애국동지회(김현 단장)

■ 협력단체

사단법인 이승만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회장: 황교안)/
 대한민국국가원로회의 (이상훈 상임의장: 27대국방장관 / 공동의장: 권영해 공동의장(30대국방장관 21대국가안전기획부장)
 AKUS(한미연합) 총회장: 김영길 / 한국회장: 송대성 장군(대한민국수호 예비역 장성단회장 (대수장)
 한국사랑 미주 총연합회(이병만 대표) / 서부국가원로회 (김향로 상임의장) /
 미주한인지도자협의회 (조광세 총회장) / 미주한국어교육장학재단(문상귀 수석부회장) /
 일사회 / 엔키아(NKIA)탈북자 선교회 / 정의연대/한미동맹협의회 /
 남가주영관장교회 (진재곤 회장) / 6.25전쟁 참전동지회(이재학 회장) /
 남가주장로협의회 / 미주광명교회외 애국 기독교단체 및 애국 보수단체일동

*일정 및 조직은 추가조정 될 수 있음

행사문의

행사위원장-김영구 목사(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역 총재 / 엔키아 탈북자 선교회)/310-404-6219
 추진위원장 이병만(한국사랑 미주 총연합대표/미주한인재단 LA회장)/ 678-538-7777



“유튜브의 낙태 정보 관련 새 정책, 검열로 이어질 수도”

美 친생명단체 우려 제기

친생명단체가 낙태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검열하려는 유튜브 정책에 대해, 이 주제에 대해 ‘선동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콘텐츠의 삭제 및 실제 잘못된 정보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유튜브는 최근 “의학적으로 잘못된 정보에 관한 우리의 정책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낙태법 지침을 제공하거나 낙태 안전에 관한 잘못된 주장을 선전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와 관련된 영상이나 상위 연관 검색 결과 하단에 세계 보건 당국의 내용과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패널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친생명 단체인 ‘전미생명권’ (

National Right to Life)의 로라 에체바리아(Laura Echevarria) 커뮤니케이션 국장은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유튜브가 낙태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을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체바리아 국장은 지난 6월 24일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도스 앤 잭슨여성건강’에 대한 대법원 결정 이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여러 낙태 찬성 단체 중 하나로 가족계획연맹을 언급했다. 가족계획연맹은 미국에서 가장 큰 낙태 서비스 제공업체다.

그녀는 “자궁외임신과 여성이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잘못된 정보에 바탕을 둔 캠페인과 수많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 또 유산을 낙태와 혼동하여 유산을 경험한 여성이 기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말들도 있다”고 했다.

그녀는 그러나 “유도낙태는 약물이나 외과 수술을 통해 고의적으로 인명을 죽이는 것이며, 자궁 내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낙태를 했을 때 살아 있는 유도낙태와, 아이가 뱃속에서 이미 사망한 유산, 자궁에서 임신이 일어나 실제로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자궁외임신을 대조했다.

에체바리아는 “가족계획연맹과 같은 단체가 유산이나 자궁외임신을 한 여성도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잘못된 정보”라며 “유튜브가 이러한 종류의, 보건 당국을 인용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규모의 잘못된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또 “가족계획연맹 외에 미국산부인과대학(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s)이 과거에는 매우 신뢰할 수 있었으나, 낙태(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우 정치적이 되었다”고 한탄했다. 미국산부인과대학 역시 유튜브가 낙태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세계 보건 당국 중 하나에 속해 있다.

에체바리아는 “이들을 비롯한 다른 단체들은 ‘사명 선언문’에서 이미 낙태 산업에 굴복하고 있으며, 명시된 그들의 목표는 요청에 따른 낙태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가 영상에서 태아에 대해 언급한다면, 그들은 이를 선동적 언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유튜브의 이 같은 조치가 친생명 단체의 운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혜진 기자

美 법원, IS 침수 영상 참여한 캐나다 시민에 ‘종신형’

내레이션과 번역 등 맡아... 시리아민주군이 체포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돕고 미국인 제임스 폴리 기자를 침수하는 영상에 내레이터로 참여한 캐나다 시민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미 법무부는 최근 성명에서 “버지니아 동부지법의 T. S. 엘리스(T. S. Ellis) 판사가 사우디 태생의 모함메드 칼리파(Mohammed Khalifa·39)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칼리파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1월까지 IS와 동역했는데, 시리아민주군이 IS 대원들과 총격전에서 그를 체포했다.

그는 IS 대원으로 복무했고, IS를 대신해 2명의 시리아군을 처형했으며, IS 선전물 번역가로 활동하면서 IS가 공개한 여러 영상의 내레이터로 참여했다.

미 법무부는 “칼리파는 잔인한 인질극 및 몸값을 요구하는 영상 등 IS가 제작하고 발표한 15개 영상에서 내레이션과 번역을 맡았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2014년 9월 19일 배포된 ‘전쟁의 불꽃: 싸움은 막 시작했다’(Flames of War: Fighting Has Just Begun), 2017년 11월 29일 배포된 ‘전쟁의 불꽃II: 마지막 시간까지’(Flames of War II: until the Final Hour)가 포함됐다.

법무부는 “영상에는 비무장한 수감자들이 처형되는 장면, IS의 공격과 전투 장면, 미국의 IS 공격을 묘사한 장면, IS와 대원들의 미화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칼리파는 체포된 후 FBI의 감시 속에 버지니아 동부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2021년 10월 4일 처음 모습이 공개됐다.

그는 자신이 하급 대원으로 IS의 목소리일 뿐, 촬영이나 침수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BBC는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가 IS에 물질적 지원 또는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모의하고, 결국 살인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진영 기자

‘좌파와 전쟁’ 美 플로리다주지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미국 플로리다주 드산티스 주지사. ©NBC2 News Facebook

미국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플로리다주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좌파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드산티스 주지사는 지난 22일 플로리다주 할리우드에서 열린 ‘선샤인 서밋’(Sunshine Summit) 만찬에서 “여러분들은 싸울 준비

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좌파의 궤계를 대적하여 서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굳게 서라. 여러분은 불타는 화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지난 2월 열린 보수 정치행동회의(CPAC)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그는 당시 참석자들에게 “온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좌파의 계획에 굳건히 맞서라.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해줄 수 있다. 플로리다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지킬 것이고, 선을 유지하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막 싸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24년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그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여기에서 석유와 가스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인가? 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석유와 가스를 얻으려고 주먹을 휘두르는가? 우리가 에너지를 독립

할 기회가 있고 다른 나라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할 수 있다. 그러나 풍차로 현대 경제를 운영하지 말라.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해상 풍력산업 지원 계획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만에서 70만 에이커(약 2,833km²) 부지에 풍력 발전 시설을 건설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회복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가스 가격 하락에 관한 트윗터를 남겼다가 비판을 받았다. 상승할 때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하락하자 이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트위터 사용자 Wokest는 “바이든이 휘발유 가격은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몇 달을 보냈다는 점에서 이는 미친 트윗”이라며 “휘발유 가격은 그가 집권했을 때보다 여전히 2배나 비싸다”고 지적했다.

강혜진 기자

美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허들 세계신기록... “하나님 찬양하라”

미국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시드니 맥러플린(Sydney McLaughlin)이 최근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400미터 허들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맥러플린은 50.68초로 허들을 완주하여 13개월 만에 400미터 허들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그녀는 2020도쿄올림픽에서 51초90으로 세계신기록을 세운 바 있다.

맥러플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승 소식을 알리며 성경을 인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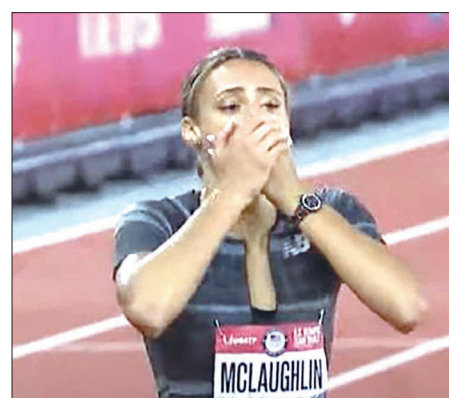
맥러플린은 성경구절 히브리서 4장 16절(“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을 올리면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선언했다.

이어 “어제는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다.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팀의 핵심은 믿음과 신념이었다. 노력과 결함된 기도는 50.68초라는 기록으로 남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했다.

지난 5월 전 NFL선수인 안드레 레브론과 결혼한 맥러플린은 남편, 가족, 코치, 지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그녀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포츠의 한계를 뛰어넘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이라고 말했다.

앞서 맥러플린은 NBC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다”라며 “요 며칠간 이 대회를 준비하며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



미국 육상선수 시드니 맥러플린.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히브리서 4장 16절을 생각했다. 오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다윗 왕 일대기’ 미 뮤지컬, 오는 9월 생방송 스트리밍 개봉

미국의 크리스천 브로드웨이로 불리는 ‘사이트앤사운드 극장(Sight & Sound Theatres)’이 다윗 왕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제작해 개봉을 앞두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다윗-라이브(David-Live)’는 그가 어린 소년 시절부터 블레셋의 거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풀어낸다.

이번 뮤지컬은 다윗이 골리앗 및 다른 거인과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지만, 밧세바와 간음한 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복하는 과정도 감동적으로 묘사한다. 온라인 공연에는 15분간의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도 담겨 있다.

라이언 밀러 프로듀서는 CP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되는, 양치기 소년 다윗의 놀라운 이야기는 뜻밖의 모험으로 가득 찬 일대기”라며 “이 작품은 그의 삶의 모든 복잡함과 그가 승리와 실패를



미국 ‘사이트앤사운드’ 극장이 제작한 성경 영화 ‘다윗’이 오는 9월 스트리밍 서비스로 개봉된다. ©Sight & Sound Theatres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뮤지컬은 9월 실시간 스트리밍 이벤트 기간 동안 개봉되며, 자체 플랫폼인 ‘sight-

sound.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사이트앤사운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부터 관객들이 집에서 라이브 극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 회사는 2020년 ‘에스더 여왕-라이브’(QUEEN ESDER-Live)에 이어 2021년 부활절 기간에 ‘예수-라이브’(JESUS-Live)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영했다.

밀러는 자신이 성경을 읽는 내내 다윗이 “분명 주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랐다. 이는 실제로 내가 본 적도, 가져본 적도 없는 방식이었다”며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소로 만드는 동시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든 재미와 액션 어드벤처, 멋진 장면들을 지키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와 미주리주 브랜슨에서 극장을 운영하며 40년간 2500만 명이 넘는 관객들에게 성경에 기반한 연극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해 왔다. 이후 제작사는 스트리밍 채널을 개설해 매년 성경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을 방영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Baeksong.kr

이순희목사 2022/08 해외사역 일정안내

8/1(월) - 8/3(수) (주강사:이순희목사)



미주성결교회 남가주 교역자회 수양회

"회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 (Fresh Start for Recovery!)

미주성결교회 교역자회 회장-김성식목사

이순희목사

백송교회 담임목사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
백송수양관 관장
기독교 생활영성연구원 원장
전세계 찬양치유 부흥사
각종 세미나 강사

서울신학대학원 Th.D 선교학
서울신학대학원 Th.M 선교학
서울신학대학교 / 신학대학원 M.Div

도서 <복음과 영적전쟁>, <복음과 내적치유>
<영혼을 살리는 찬양> 1,2 저자



8/5(금) - 8/14(주일) (10일간, 저녁 집회)

15차 LA 백송교회 성령컨퍼런스

저녁 7:30 ~ 설교:이순희목사

3251 W. 6th St. B1 Los Angeles, CA 90020 | 문의 213 674 7966

LA 백송교회
김성식목사

성령컨퍼런스는

"근본적인 치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성령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누리는 **회복의 예비**로 깊은 영성훈련에 돌입하는 집회입니다.

8/22(월) - 8/25(목) (4일간, 저녁 집회)



캐나다 토론토 백송교회 성령컨퍼런스

저녁 7:30 ~ 설교:이순희목사

#15-11 Glen cameron rd. Thornhill, ON L3T 4N3 | 문의 647-637-4013

잠재력의 무한대로 빛을 받하라!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 독 교
미주성결교회

LA 백송교회

3251 W. 6th St. B1 Los Angeles, CA 90020 | 문의 213 245 6616

담임목사 김성식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1만여 명, 무슬림 독점 대선 투표용지 반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이지리아 현지 기독교인들. ©오픈도어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양분해 온 전통 위해

1999년 이후 나이지리아 민주 선거의 전통은 모든 정당이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에 기독교인 한 명과 이슬람교인 한 명을 넣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슬람이 북쪽을 지배하고 기독교가 남쪽을 지배하는 등, 국가의 인구가 2가지 종교로 대략 균등하게 분할했기 때문이다.

아담스는 무슬림-무슬림 투표용지가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공동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에반젤리컬 처치 위닝 올'(Evangelical Church Winning All) 교단과 나이지리아기독교협회(Christian Association of Nigeria)와 같은 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APC를 지지하는 카오데 파예미(Kayode Fayemi)는 최근 CAN에 투표용지의 종교적 구성에 항의하기보다 APC에 CAN의 견해를 제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파예미는 "기독교 지도부는 현재의 도전을 기회로 삼아 모든 정치 후보자, 특히 우리 당(APC)에 기독교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환원 불가능한 최소 조건을 설명하는 요구사항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정치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 나이지리아 내 기독교계의 위치를 강조한 후, 우리의 요구를 제시할 계획이다. 모든 후보자들 가운데 교회가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토론을 조직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몇 가지 이유 중 이것이 우리가 나이지리아기독교협회(CAN)와 다른 교회들이 무슬림-무슬림 투표용지 문제에 반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시리아 하마 정교회 건물에 로켓 테러...2명 사망, 10여명 부상



지난 24일 시리아 중부의 알-수카일라비아 마을에 위치한 하기가 소피아 교회 헌당식 도중 테러 단체의 미사일 포격을 당해 2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 당했다. ©트랜스컨티넨탈 타임스 유튜브 보도화면 캡처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아야 소피아 성당을 모사한 시리아의 한 그리스 정교회 건물이 헌당식 도중 폭탄 테러를 당해 최소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 24일 시리아 중부 하마에서 북서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알-수카일라비아 마을에 있는 하기가 소피아 교회에서 인파가 붐비는 헌당식을 겨냥해, 정체불명의 테러 단체가 로켓을 발사했다고 AFP 통신이 시리아 아랍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공격에는 로켓과 미사일, 무장 드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부는 2020년 7월 터키 정부가 아야 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개조한 데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이를 복제한 성당 건물을 2년간 짓기 시작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 감시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ICC)은 가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터키가 지원 하는 비국가 행위자들과 연계된 회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제프 킹 ICC 회장은 "내전 기간 내내, 시리아 정부, 터키, 러시아 등이 나라 전역에서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

아왔다"며 "주일날의 공격은 이 경쟁이 계속해서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지역 폭력의 집중 공격 속에 몰아넣는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그는 "시리아에서 무장세력들이 다시 한번 민간인의 생명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경시 태도를 보였다. 이번 공격의 희생자들과 함께 기도한다"고 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하마 일부 지역은 전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샤'가 장악하고 있으며, 다른 반군 단체들도 터키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아야 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전통 보수세력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스탄불의 아야 소피아 성당은 537년에 건축된 그리스 정교회 성당으로, 15세기 오스만 제국의 정복자 술탄 메흐메트 2세에 의해 모스크로 탈바꿈하기 전까지 900년간 동방 기독교의 총본산 역할을 했다. 1934년 튀르키예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이 성당에서 예배를 금지시킨 뒤 박물관으로 지정했다.

김유진 기자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민중기 담임목사

사우스베이 지역

가디나장로교회
 애수의 온전한 재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거리,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종용 담임목사

토렌스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기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창현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지역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김한오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mc.org

림학춘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성수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웅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남성수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찬 교회 삼금반교회 세계선교를 미루려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안상희 담임목사

갯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선교 동역자들과의 만남 이야기(2)”

지난주에 이어서 터키 선교를 다녀온 C 목사의 이야기를 전하겠다. 터키는 81개 도 전역이 온통 난민들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다. 터키 정부는 이란 난민을 받아들였고, 이어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난민 등 500만 명이 넘는 난민을 받았다. 비공식적으로는 800만 명 이상이라 하기도 한다. 이스탄불, 이즈밀, 앙카라, 디야르바키르 등 대부분의 도시에는 각국의 난민들로 온 거리가 가득 찼다. 지역별로 각국의 난민 부락들이 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우리의 선교는 터키 안에 있는 시리아 난민 부락, 아프가니스탄 난민 부락, 그리고 시리아 난민 부락 등을 정해 선교팀이 나누어져서 파송되어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난민 캠프라는 명칭은 대개 유엔 산하 NGO 단체들이 인원을 제한해서 수용시설을 운영하는 곳을 지칭한다. 그러나 유엔이 관할하는 난민 캠프는 너무도 제한적이어서 모든 난민의 10분의 1도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대부분 난민들은 대도시, 중소 도시 가리지 않고 도시의 빈민으로 구걸하고, 힘이 있는 남성들은 일용직 허드렛일을 찾아 다니며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

우리의 선교는 그들에게로 찾아가는 선교다. 부락에 가서 보이는 영혼들과 인사를 나누고, 호기심에 다가오는 영혼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싶다고 하며 전한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 대부분 난민은 진지하게 경청한다. 그리고 반응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던 집과 고국을 떠나 난민으로 살게 된 이유가 나라의 내전 때문이다. 그 내전의 중심엔 IS나 탈레반 등 강경 이슬람주의자들이 있어서 모든 내전의 원흉이 되어 있다. 난민들은 그들을 혐오하고 증오한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나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많은 이들

이 관심을 갖는다. 필자가 처음 이슬람권을 방문했던 2000년대와는 불과 10여년 지났지만, 확연히 반응이 다르다. 예전엔 반대와 핍박도 많았다. 위협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곳에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 중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도 많아졌다. 공원에서 만난 한 영혼은 복음의 이야기를 듣다가 해가 어둡어둡해졌는데 자기 집이 가까우니, 같이 집에 가자고 했다. 그래서 C 목사팀(3명)은 그 형제 집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노부모님이 계셨고, 장모님도 같이 사시고, 결혼한 동생 부부가 옆 방에서 살고, 아이들은 다 합쳐 6명에 아내까지 13식구가 한집에서 산다. 필자가 경험한 가정들도 대부분 가족이 많았다. 3명의 팀원 중 한 명은 그 형제와 계속 복음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한 명은 아이들을 담당해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 주고, 다른 한 명(여성)은 할머니들과 아내 등 여성분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단기 팀들이 가서 이런 방법으로 가정 방문 사역을 한다. 그중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명을 집중해서 전도하고, 그때 다른 팀원들은 다른 가족들을 맡아줌으로써 한 영혼을 맡은 분이 복음 전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든다.

17살 세실은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소녀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세실은 기숙사에서 자라며 한편으로는 아빠를 갈망하고 한편으로 자유를 만끽하는 발랄한 소녀입니다. 세실 아빠는 청소년인 세실과 말이 잘 통합니다. 반면에 그 아빠는 애인을 6개월마다 바꾸며 자유롭게 사는 중년입니다. 그런데 세실은 이런 아빠를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사실은 세실도 자유롭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어느 여름 세실과 아버지는 지중해로 여름휴가를 떠납니다. 휴가엔 아버지와 동거하는 엘자가 동행하는데, 엘자는 세실과 나이가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아주 젊은 여인입니다. 휴양지에서 셋은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아빠와 젊은 애인 엘자는 애정행각을 벌이며 신나게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세실도 휴양지에서 만난 시릴이라는 법대생 젊은이와 사랑을 나누며 휴가를 만끽하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에 별장에 있는데 안느라는 여성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돌아간 세실의 어머니 친구요 패션 사업가인데 교양미가 넘칩니다. 그래서 세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안느가 세실에게 공부와 연애에 충고하는 등 삶을 간섭하자 불편해집니다. 안느는 이웃에게 쉽게 간섭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느는 잔소리가 심했고 세실은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별장에서 머무는 동안 안느와 세실 아빠는 사랑에 빠집니다. 세실 아빠는 지금까지 만났던 젊은 여인들과 다른 안느의 교양미에 푹 빠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급하게 사랑을 키우고 급기야 결혼을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여자와 연애만 했던 아빠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세실은 심경이 복잡합니다. 먼저 세실은 안느를 어머니의 친구로 또 성공한 직장인으로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하지만 아빠의 결혼상대로 안느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안느가 자신의 새 어머니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마뜩지 않았습니다. 안느가 새 어머니가 되는 것은 세실에게 부담스럽고 불편했습니다.

또,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었던 엘자가 아빠로부터 배신당하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엘자를 특별히 사랑하지도 않았지만 특별히 불편하지

품을 남겼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프랑스와즈 사강은 수녀원이 운영하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했습니다. 퇴학당한 그녀는 미친 듯이 책을 읽어 많은 작가와 책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재즈, 위스키, 그리고 자동차 스피드를 즐기고, 마약 복용을 합니다. 마약 복용 혐의로 법정에서 그녀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말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작가는 대학생 시절 아주 짧은 기간에 이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이 작품으로 문학 비평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때 그녀 나이가 너무 어려 통장 개설이 불가능해서 상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제목 <슬픔이여 안녕!>은 ‘슬픔아! 반갑다!’의 의미입니다. 세실은 자신이 기획한 일이 비극으로 끝나자 슬픔을 알아버렸습니다. 이제는 절었던 세실이 아니라 ‘슬픔’을 아는 어른으로 슬픔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제목 번역은 <슬픔이여! 안녕!> 보다는 ‘슬픔아! 안녕!’이 옳을 듯합니다.

<슬픔이여 안녕!>은 카뮈의 <이방인>과 함께 대표적인 20세기 프랑스 소설입니다. 이 작품의 교훈을 간추려 봅니다. 첫째 천재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의 안타까운 삶입니다. 그녀는 크게 성공한 천재작가이지만 파괴적인 삶으로 자신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자신을 파괴하는 삶은 위험합니다.

둘째 슬픔을 통한 성장입니다. <슬픔이여 안녕!>은 세실이 슬픔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세실처럼 우리도 슬픔을 통해 성장합니다. 자신과 이웃의 슬픔을 이해하는 깊이와 넓이가 성숙의 척도입니다. 성숙은 자신의 슬픔을 정리하고 이웃의 슬픔을 공감할 줄 아는 것입니다.

셋째 세실이 안느와 갈등하는 포인트입니다. 원래 안느를 싫어하지 않았지만 안느의 충고가 새 엄마의 잔소리로 들립니다. 세실은 이 잔소리가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갈등 포인트입니다. 아깝고 소중한해서 던지는 충고가 잔소리로 들리고 서로가 미워질 때 <슬픔이여 안녕!>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교육의 리더십(CEO), 상담학박사, 석사학사, 석사학사, 석사학사, 석사학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일일상담: 조성호 박사 7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박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원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i.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면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제 1 차
3050차세대목회자 21인 초청
OC영적대각성 다니엘 새벽기도회
및 차세대목회자 세미나



박재만 목사
미러클포인트교회 담임



김가형 목사
가주장로교회 담임



장범원 목사
남가주온유한교회 담임



윤봉원 목사
미주서부교회 담임



이 천 목사
노엘교회 담임



서철원 목사
뉴헤브론교회 담임



박승우 목사
성김의교회 담임



장인수 목사
OC갈보리교회 담임



이근환 목사
함께하는교회 담임



조진웅 목사
바인교회 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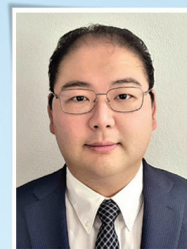
이창남 목사
주님의손길교회 담임



조준민 목사
치노밸리아름다운교회 담임



박정기 목사
The Rock 한인교회 담임



최신준 목사
정금교회 담임



황여호수아 목사
남가주프라이스교회 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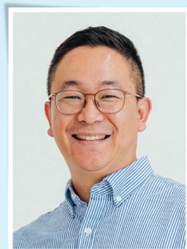
이태희 목사
주심교회 담임



정중환 목사
남가주민음의교회 담임



서민수 목사
방주교회 담임



곽태규 목사
생명의길교회 담임



이진환 목사
순전한교회 담임



추석근 목사
선한뜻교회 담임

새벽기도회

■ 일 시: 2022년 8월 1일 ~ 8월 24일
월-금 오전 5시 30분, 토 오전 6시(총 21회)

■ 장 소: 갈보리선교교회 (담임 심상은 목사)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심상은 목사
갈보리선교교회 담임
OC교협 회장

목회자 세미나 “위드코로나 시대에 목회적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일 시: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

■ 장 소: 은혜한인교회 2층 친교실 (담임 한기홍 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강 사:



최흥주 목사
에브리데이교회 담임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 문 의: (714) 722-4805

■ 대회장: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공동주관 : OC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장로협의회, OC여성목사회, OC기독교교회협의회
협 찬 : [주간]사람과사회, 크리스천헤럴드, CHTV, 미주복음방송, 세계어머니기도회

강준민 칼럼

작은 점들을 연결시키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은 작은 점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인생은 점들의 연속이다. 우리가 찍는 그 점들은 어떤 식으로든 미래로 연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은 점들 속에 담긴 놀라운 잠재력을 볼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만든 것들은 사실 작은 점들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거들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성취도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고,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작은 것 속에 담긴 무한한 잠재력을 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점점 커져 놀라운 변화를 창조하는 것을 보는 안목이 통찰력입니다.

다. 제 인생을 돌아켜 보면 저의 인생을 만들어 온 것은 작은 점들입니다. 그 작은 점들을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섭리의 스토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변화시킨 작은 점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작은 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고등학교 시험을 마친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제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한 순간이 제 생애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담아 두신 놀라운 잠재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생애 가장 소중한 점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둘째, 특별한 말씀과의 만남이 작은 점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특별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중에 몇 개의 말씀이 우리 생애를 움직이고 만들어 나갑니다. 제 인생 여정에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은 말씀 묵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준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은 제게 큰 꿈을 품게 해 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은 뿌리 깊은 영성을 추구하게 해 준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 외에도 제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많습니다.

셋째, 좋은 만남이 작은 점입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인생은 만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 생애를 변화시키는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 안에 있는 재능과 은사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는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책을 소개해 주는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멘토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에 눈을 뜨도록 도와주는 만남입니다. 루스티 베르쿠스는 “인생에는 가끔 신비한 만남이 찾아와서 우리를 인정해 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일깨워준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큰 가능성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넷째, 고난과의 만남이 작은 점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손님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킨 가장 소중한 사건은 고난이라는 사건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고통은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 인

생은 비랑 끝에서 새롭게 전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 고난은 새로운 간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새로운 드라마를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개입하십니다. 고난의 때에 함께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 삶의 충격입니다. 위기입니다. 도전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하도록 자극합니다. 우리 삶의 놀라운 스토리는 고난을 통해 전개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작은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작은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 열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고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고난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소중한 작은 점들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소중한 작은 점들을 연결시켜 글을 써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서전입니다.

메타버스 속 MZ 세대 시리즈 4-①

4차 산업 혁명 시대 4가지 이점

MZ 세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차 산업 혁명은 176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증기기관과 방직기, 기계의 발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차 산업 혁명은 1870년대 전기의 발명으로 도래하였습니다. 전기가 등장한 뒤, 조선업, 철강 산업도 발전하였습니다. 2차 산업 혁명 때, 자동차도 발명되었습니다. 3차 산업 혁명은 컴퓨터로 말미암아 도래하였습니다.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 대해 논하였는데, 이는 바로 정보화의 혁명이었는데, 3차 산업 혁명 때, 컴퓨터가 보급되고, 인터넷과 온라인 세상이 펼쳐지면서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 혁명은 어떻게 도래하였을까요?

〈한 권으로 정리하는 4차 산업혁명〉, 최진기 저자는 4차 산업 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 혁명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

터를 기반으로 무인차와 VR을 사용하는 정보화 혁명이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산업 기술이 발달되어 인간이 자유로움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신세계가 열린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공장으로 들어와 혁신적으로 인간에게 휴식을 제공했습니다. 더욱더 소비를 손쉽게 핸드폰으로 하게 해 주었고요. 즉 이런 4차 혁명 시대는 우리를 메타버스 시대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사는 우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과 소비문화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 이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1) 첫째, 4차 산업 혁명 속 메타버스가 가상현실을 통해 내적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연이라는 친구는 7살이 되기 전에 부모님 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너무나 슬퍼했는데, 한 방송국에서 나연을 다시 만나 잠시 나연이 엄마가 나연을 만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2020년 2월 6일 〈너를 만났다〉라는 제목으로 TV에 방영되었는데, 그 당시 참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시청했습니다. 저도 참 많이 울면서 보았습니다.

제작진은 1년 동안 나연이의 기본 뼈대를 구성하는 3D 스캐닝을 하고, 얼굴, 체형, 피부, 표정, 동작 등의 리터칭 작업을 했습니다. 가상현실 환경은 언리얼 엔진으로 구현했는데, 가상현실과 혼합현실(Mixed Reality)을 통해 나연이 엄마를 위로하고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2) 둘째, 4차 산업 혁명 속 메타버스 시대에 의료계가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골드러시〉, 책에서 문민호 저자는 메타버스로 의료 교육 때, XR 기술로 감염의 염려 없이 어디서든 수술실 참관이 가능하였음을 기술하였습니다.

“수술실 참관은 원래 감염의 우려 등으로 소수의 인원만 참관할 수 있는데, 이마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2020년 5월에 열린 분당서울대병원의 ‘라이브 서저리Live Surgery’는 세계 최초 메

타버스와 XR 기술을 이용한 수술 참관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언급할 만하다.

‘라이브 서저리’는 메타버스로 구현된 스마트 수술실에서 실제 폐암 환자의 수술을 보여 주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200여 명의 강사와 학생이 아바타로 참관했으며, 360도 8K VR 카메라가 사용되어 세 대의 모니터로 3차원 영상으로 된 집도의 시야의 수술 과정과 수술 팀의 세밀한 기구 조작 모습, 집도의와 간호사를 볼 수 있었다.” (계속)



김영한 목사
품은 교회 담임
Next 세대 Ministry 대표

2022다니엘기도회 & 꿈이있는미래

미국동부지역 CONFERENCE

엔데믹(endemic)시대의 교회와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한 목회전략 Conference에 초대합니다.

- 대 상 목회자, 사모, 주일학교 사역자
- 등록비 무료 (점심식사 제공)
- 등록 방법 및 문의
인터넷 등록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 danielprayer.org ‘미국Conference’ 신청페이지 작성
등록 및 문의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회 ☎ 21danielprayer@gmail.com ☎ 02-6413-4922



김은호 목사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장 (오륜교회 담임)

주경훈 목사
꿈이있는미래 소장

주성하 목사
다니엘기도회 운영팀장

- 1차 New Jersey Conference
일시 2022.9.13 (화) 10:00~15:00 장소 필그림선교교회(양춘길 담임목사) 80 Commerce Way Hackensack, NJ 07601 ☎ 201-461-1225
- 2차 Washington Conference
일시 2022.9.19 (월) 10:00~15:00 장소 와싱턴중앙장로교회(유용철 담임목사) 15451 Lee Hwy, Centreville, VA 20121 ☎ 703-815-1200



등록 QR 코드

사전등록 혜택 ~ 8월 31일 까지

- ① 강사 저서 증정
- ② OBOX(기독교 콘텐츠 OTT 서비스 전용셋탑)
- ③ 꿈이패키지(샘플북 & 콘텐츠usb)
- ④ 한국 방문시 오륜교회 사역탐방 기회 제공
- ⑤ '미국 동부 사랑의헌금 프로젝트' 기회 제공
 - 1) 대상 : 뉴욕, 뉴저지, 워싱턴 지역의 한인교회 · 재정 성도 30명 이하의 교회 · 교회 헌트 비용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교회 · conference 사전 등록 및 다니엘기도회 참여를 희망하는 교회
 - 2) 접수 방법 및 기간 :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8월 31일까지 접수
 - 3) 지원대상자 선정 : 심사 후 최종 대상자 선정하여 conference 당일 사랑의헌금 지급

진유철 칼럼

구원받았으면 전해야 합니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구려시대 사람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식의 질문에 직설적으로 대답하면, 기독교는 앞뒤가 짝 맞혀있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종교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그 벌로써 지옥 간다는 말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

람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치료법을 개발하지 못한 병원이나 제약회사 책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헌신적인 의사와 병원에 의해서 치료의 길이 개발되고 열렸습니. 그렇다면 병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연 병원이나 의사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 이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을 알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종교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도, 선행으로도, 종교적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기에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지옥 같은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구원의 길을 열

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 사망을 대신 지불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므로 죄 사함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죽은 영이 거둬나 산영이 되어서 천국 가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죽였다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은 정상이 아닌 분일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십자가 밖에 없기 때문에 한 분 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기 위해 어마어마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믿어서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하지 않겠

습니까? 맛있는 식당이나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곳, 재미있는 영화나 일이 생기면 열심히 얘기하고 전하면서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길이 있는데도 가족에게 이웃에게 얘기를 안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세월 호 침몰사건 때 자기 하나 살겠다고 먼저 도망친 선장에게 법원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두고 도망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에 가지 않을 길을 아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살 길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주일 저녁 8차 도미니카 단기선교팀 40명이 출발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며 전진할 때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한요 칼럼

내려놓을 지팡이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요즘 목회자들이 만나면,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교회의 생태계를 보면서 그 대처방안을 논하는 것이 주된 일입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에 익숙해진 성도들을 어떻게 다시 현장으로 데려올 것인가에 대한 이런 저런 방법을 나누기에 바쁩니다. 대략 70%의 성

도들이 현장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30%의 성도들은 정말로 어디로 간 것일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질문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 본 교회의 예배채널에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로 간주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소위 '주일 성수' 했다고 여기고 계속 등록교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팬데믹으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현장예배를 닫게 되면서 그 대안으로 시작된 온라인 예배는, 온라인화 되어가는 이 시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찾는 아이러니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는 늘 주장했듯이, 팬데믹은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백일하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

이었다고 믿습니다. 예배 처소에 나올 수 없을 때 우리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인지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배당에 나올 수 있을 때, 더 분명하게 나의 신앙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팬데믹 전에는 예배에 나오는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제는 예배에 나오지 않고 편의주의에 빠진 온라인 성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없습니다. 현장예배를 드리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분명한 것은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붙들었던 것, 아니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본질이 다시 우리의 손에서 떨어져 가고 있

는 지금, 아직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30%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니던 모세의 지팡이가 골리앗 같은 인생의 장벽이나 완고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 같이, 내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우리도 확실히 보아야 합니다. 팬데믹이 가르쳐 준 본질을 놓치지 않을 때, 내 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놓으면 뱀이 되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팬데믹에 끌려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내 지팡이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평생 의지했던 지팡이, 팬데믹 때 깨달은 그 지팡이, 이번에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일어섭시다.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죽선교
박상원 목사

철갑이 너는 진정한 전도자다
내가 조직한 기도회에는 1999년 겨울 보위부에 끌려가 2000년 여름에 옥사한 순교

자 철갑이가 있었다. 철갑이는 어쩌나 주먹이 독한지 누구든지 한 번 맞았다 하면 갈비뼈가 날아갈 정도였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자같이 용맹해야 한다고 믿던 내게 철갑이는 그야말로 천군만마처럼 든든한 동료였다.

이러한 철갑이를 소개하려면 먼저 1997년 봄에 일어났던 일부터 언급해야 한다. 그 해 봄 우리는 손으로 직접 필사한 전도 자료를 운반하다가 열차 안에서 공간에 잡힌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때 철갑이가 갑자기 정신병자 행세를 하는 것이었다. 천하에 철갑이가 정신병에 걸리다니, 도무지 만기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내가 알기로 싸움꾼은 대개 정신병에 걸릴 위인이 못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철갑이는 그날 이후 정신이 나가

서 온 도시를 맨발로 뛰어다니며 쓰레기를 주워 먹고 다녔다. 안타깝고 속상해서 철갑이를 집에 불러들여 놓으면, 철갑이는 눈치를 살피다 틈만 보이면 벼락같이 밖으로 뛰어 나가곤 했다. 힘이 장사인지라 붙들어도 풀 수 없고, 그렇다고 쓰레기나 주워 먹는 꼴을 볼 수 없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그를 찾아 거리를 쏘다니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아이들이 나무막대 끝에 똥을 찍어서는 떡이라며 철갑이에게 건네자, 철갑이는 그것을 진짜 떡인 줄 알고 받아먹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안전부 주재원이 철갑이가 정말 미쳤는지를 알아보려고 아이들을 사주해서 그런 일을 꾸민 것이었다. 주재원은 철

갑이가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미친 짓을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정말 미친 게 맞는지 알아보려고 똥을 떡이라 속이고 먹었다니, 나아말로 분통이 터져 미치는 줄 알았다. 당장에라도 때려눕히고 싶었지만 주변의 만류에 다음을 기약하며 이를 갈았다. 그런데 주재원은 내가 복수도 하기 전에 술을 잔뜩 마시고는 공동변소에 들어갔다가 똥구멍이에 빠져서는 죽고 말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철갑이가 아이들이 준 똥을 먹은 후 온 도시에 천하의 강철 주먹 철갑이가 정신이 나가서 똥을 처먹었다는 소문이 염병같이 퍼져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은 철갑이가 나타나면 더러운 똥을 보듯이 그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계속)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증가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망막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커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해당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해당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기간 인체에 머물러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마지막 남겨진 불씨까지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쉬지 않고 복음 전했다던 조지 윗필드



윗필드 씨! 제발 마이크 내려놓고 쉬세요
아놀드 A. 델리모어 | 오현미 역
이레서원 | 360쪽

열정의 논스톱 복음 전도자 조지 윗필드 전기

“나는 내 영혼과 몸을 그분의 처분에 맡기고 그분을 위해 수고하다가 닳아 없어질 것이다.”

조지 윗필드는 언급하지 않고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논하기를 불가능하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록한 자의 승리이기도 하다.

당대에는 웨슬리 형제보다 월등한 인기와 능력, 영향력을 끼쳤지만 안타깝게 조지 윗필드는 기록하지 않았고, 웨슬리는 기록했다. 결국 18세기 영국 대각성 운동의 승자라는 웨슬리로 기억한다.

존 웨슬리가 조지 윗필드보다 뛰어나다 기억하게 된 것은, 그의 두 가지 업적 때문이다. 하나는 그의 조직력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기록이 남겨졌기 때문이다. 현재도 존 웨슬리의 일기는 감리교도들에게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경전과 같은 책이다.

존 웨슬리의 일기는 끊임없이 개정판이 출간되고 있으며, 한국도 여전히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심지어 형제인 찰스 웨슬리는 뛰어난 음악적 감각을 지닌 덕에 수많은 찬양을 지었으며, 2010년 대한기독교감리회는 <웨슬리 찬송시 선집>을 출간하기까지 했다.

현재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찰스 웨슬리의 찬양이 담겨 있다. <내 주는 살아 계시고>,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천사 찬송하기를>, <예수 부활했으니>, <천부여 의지 없어서> 등이다.

18세기 영국 대각성 운동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초기 형태는 조지 윗필드에 의해 시작된 설교 중심의 부흥 운동이다. 조지 윗필드는 강력한 칼뱅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다.

두 번째는 조지 윗필드의 조언으로 광부들에게 길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부흥의 흐름을 만들어낸 웨슬리 형제의 조직적이고 성경체험을 강조하는 흐름이다.

마지막은 이론으로만 남아있던 사랑을 사회참여로 드러내야 한다는 강력한 신념을 실제로 실천하고 표방한 윌리엄 윌버포스를 대표로 하는 사회 복음주의자들이다.

조지 윗필드(1714-1770)는 1703년에 태어난 존 웨슬리보다 11년이 젊었지만 극도로 과로한 탓에 일찍 세상을 떠나고, 존 웨슬리는 1791년까지 생존하면서 무려 윗필드보다 21년을 오래 산다.

존 웨슬리는 산업혁명 시대에 보기 드물게 장수한 사람 중의 한 명이다. 윌버포스는 1759년에 태어났으니 동시대 인물인 하지만, 시대적으로 윗필드와 웨슬리 부흥 운동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 시작한 2세대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책은 1992년 두란노에서 번역된 책이다. 저자인 델리모어는 원래 조지 윗필드의 전기 두 권으로 출간했다. 2015년 ‘복있는 사람’에서 한 권으로 묶어 출간했다. 1,300페이지가 넘어가는 이 책은 보기에 부담스러울 만큼 엄청난 분량이었다.

델리모어는 독자들의 요청과 더불어 스스로도 분량을 간추려 한 권으로 담고 싶은 마음으로, 기존 윗필드 전기에서 중요한 부분만 추려내 한 권에 담았다.

윗필드는 어린 시절 행복하지 않았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재혼을 한다. 하지만 결코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여관 일을 도우면서 자랐다. 그 러다 옥스퍼드에서 홀리 클럽으로 불리는 이들과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 웨슬리 형제를 만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된다. 이때 헨리 스쿠걸의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책을 접하게 되고, 거듭남에 대해 알게 된다.

윗필드 윗필드가 문제는 조지 윗필드를 비롯한 이후 많은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 하지만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조지 윗필드가 펄벅 칼리지 기숙사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아니면 옥스퍼드의 캠퍼스 어딘가에 무릎 꿇고 있을 때 거듭남을 체험했다고 말한다.

서평에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회심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이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각적 회심론과 점진적 회심론이 존재한다.

조지 윗필드를 비롯한 부흥론자들은 즉각적 회심론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후 반론을 제기한 이들이 있다. 그들은 모태신앙을 가지고 갑작스러운 체험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시 대부분은 즉각적 회심론을 주장했다. 조지 윗필드를 비롯한 웨슬리는 초기 회심에 대해 많은 부분을 다루며, 그들의 사역의 방향과 목적 역시 회심을 위한 설교로 채워져 있다는 것 또한 당시 부흥운동의 중요한 흐름들이다.

회심 이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약해나보다. 약해진 몸을 회복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면 영적 독서를 이어갔다.

이때 서적상이었던 가브리엘 해리스가 외상으로 윗필드에게 <매튜 헨리 주석>을 주었고, 그때부터 조지 윗필드는 매튜 헨리 주석의 열렬한 팬이 되었다. 스물한 살이 되던 1736년 6월 20일 드디어 임직을 받게 되고, 목회자로서의 정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후 조지 윗필드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산업화로 인해 인간은 소외되고 영성을 바닥에 떨어진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윗필드의 설교를 계속하여 요구했다. 지질 줄 모르는 그의 열정은 결국 일찍 주님의 품으로 가게 만들었다.

영국과 뉴잉글랜드(현재의 미국 북동부)를 오가며 뉴잉글랜드에서 대각성 운동을 리드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와도 교제를 나누었다. 1770년 9월 30일, 그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거두고 주님께 돌아간다. 그날은 주일이였다.

정현욱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8월, 작가들의 말말말①]

◆조지훈 - 래디컬 세대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제자 한 사람이 바꾼 흐름은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 이 세상은 군중과 무리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 의해서 변화된다.



래디컬(radical)의 정의는 뭔가 거칠게 살라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겉모양,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싸움이다. 래디컬은 진리를 따라가는 세대를 말한다. 항공모함에서 폭격기로 핵폭탄을 투하하면 세상은 뒤집어진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 무엇이 진짜 힘인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짜 혁명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오늘 나의 실존을 말해준다.

◆제레미 워커(저자), 구지원(옮긴이) -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건강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우

리 위에 어떤 복을 베푸시는지, 또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반응하는지 잠시 멈춰 깊이 생각해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구원은 세 가지 시제의 사역이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다. 구속(救贖)은 영혼을 기쁘게 하는, 여러 면을 가진 보석이다. 특히 계시의 빛에 비추어볼 때 그 얼굴은 우리 앞에서 반짝이며 빛을 발한다. 하나님의 백성 위에 부어진 언약의 자비의 풍성함과 영원함은 우리의 면밀한 집중과 즐

거운 관찰과 신실한 찬송과 진심 어린 헌신을 요구한다. 이 책이 성도들을 일깨울 뿐 아니라 생기 있게 하기를, 성도의 경험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영적 카테고리 제공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감사하고 사랑하게 하기를 기도한다.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 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한산: 용의 출현> (1)

영화 <한산: 용의 출현>, 비틀린 민족주의는 여전한가

전작 민족주의와 신파적 드라마 제거는 개선
상처받은 자존심 기인한, 불완전한 역사 인식
성경, 이스라엘 괴로운 실상 있는 그대로 전수
미화된 역사, 하나님의 주권과 사역 인식 왜곡

◆임진왜란의 실상: 조선의 명백한 패배로 평가되는 전쟁

<한산: 용의 출현>은 지난 2014년 개봉된 <명량>의 프리퀄 격인 작품으로, 전작과 마찬가지로 김한민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명량>은 각본, 연출, 작품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지만, 당시 악화된 한일관계 덕분에 시류를 타고 역대 한국영화 최대 관객 수를 기록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은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분쟁, 그리고 점점 더 중국에 밀착되는 한국의 외교 스탠스 때문에 상당한 갈등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의 반일 감정도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는데, 덕분에 <명량>은 누적 관객 수 1,700만여 명이 라는, 2022년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을 남겼다.

<한산: 용의 출현>은 전작에 대한 혹평을 감안한 듯, <명량>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민족주의 메시지와 신파적 드라마를 상당 부분 제거하고, 한산도 해전에 채택된 전술과 전투 상황을 영상화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여러 영화평론가들로부터 전작보다 나은 후속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방적인 애국심 고취로 감동을 억지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한산도 해전의 전술적, 전략적 실상과 의의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해서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 작품은 한산도 해전의 주요 승리 요소로 당시 전라좌수영을 지휘한 이순신 장군의 지략과 그 휘하 장수들의 단결심, 그리고 당파와 함포 운용에 유리한 조선의 관옥선을 지목한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가진 얼마 되지 않는 군사적 자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당시 조선군의 역량 대부분은 북방의 여진족을 견제, 토벌하던 북방군과 왜구의 침략을 방어하던 삼도 수군에 몰려 있었다.



영화 속 한산도 해전 당시 조선 수군이 채택한 전투진형 학익진 묘사.

이는 조선을 침략한 왜군의 병력과 군사적 역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일본의 관백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육군과 수군 병력을 모두 합쳐 약 20만을 조선으로 출병시켰는데, 이는 이제 막 전국의 통일을 눈앞에 둔 일본 전체 병력의 일부에 불과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그 20만을 타국에 보낸 상태에서도 관공의 도쿠가와 가문과 우에스기 가문을 견제할 만한 힘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잉여 병력이 나 닮이 없었다.

게다가 그 잉여 병력의 무장도와 훈련도는 조선의 수준을 압도하고 있었다. 왜군은 100년 넘게 전국시대를 겪은 국가의 군대체계, 우수한 장수와 숙련병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조선은 성리학에 근간을 둔 극단적인 문치주의, 그리고 상공업 배척으로 인한 빈약한 재정 때문에 군사적 역량이 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이었다.

양국의 이 극단적인 군사력 차이는 어이없을 정도로 빠른 도성 한양 함락으로 귀결되었다. 왜군의 보병 병력은 다대포 전투로 전쟁이 시작된 지 겨우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다. 당시 부산에서 한양까지 가는 데 도보로 대략 보름 정도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왜군은 제대로 된 반격을 거의 받지 않은 채 무인지경으로 한반도 남부를 돌파한 셈이었다.

◆임진왜란과 역사: '대첩' 중심의 민족주의적 역사인식

조선 도성이 어이없는 속도로 함락되자, 당시 조선의 상국이었던 명국 조정은 조선이 일본과의 뒷거래를 통해 요동반도로 침략해 오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곧 선조가 명국과의 접경지인 의주까지 피신해 구원을 요청하면서 비로소 일본과의 작당 의심은 사라졌지만, 이후로는 조선의 통치방식에 대한 명국의 신랄한 질타가 이어졌다.

당시 명 조정과 지식인들의 비판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미 명에서는 구시대 유물이 된 성리학(명에서는 양명학이 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과 극단적인 농본 정책에만 매달려 상공업 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재정 확보가 되지 않아 군사적 역량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나마 전환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은 명군이 조선을 도와 참전한 이후 일이다. 결국 임진왜란은 만일 조선 자체의 군사적 역량만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해전을 재현한 영화 <한산: 용의 출현>.

으로 버텼다면, 나라가 멸망에 이르렀을 것이 거의 확실했던 전쟁이었다.

한반도 남부 해상에서 이순신의 지휘를 받는 조선 수군의 분전 또한, 명의 원군이 없었다면 그 의미가 반감되거나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만일 조선 조정이 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멸망해 버렸다면, 고립된 조선 수군은 나라 잃은 군대였던 삼별초의 운명을 그대로 답습했을 가능성이 높다.

선조가 1592년 6월 의주로 피신했고 한산도 해전은 두 달 뒤인 8월에 벌어졌으니, 그 와중에 선조와 조선 조정이 왜군에 붙잡혔으면 조선 수군 장수와 병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 마지노 요새에 주둔했던 프랑스군과 같이 자동적으로 패전병으로 전락했을 것이다.

심지어 선조는 의주로 도착한 직후인 6월 22일에 명국으로 망명을 신청했고, 6월 27일에 이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군주가 국가의 멸망을 직감하고 아예 나라를 버리고 떠나려 했던 것이다.

이 시도는 조정 대신들의 결사반대로 인해 무산되었지만, 당시 조선 조정이 멸망 직전의 상황이었으며 임진왜란은 초장부터 조선이 일방적으로 패배한 전투였다는 사실이 이를 통해서 입증된다.

그렇다면 <명량>과 <한산: 용의 출현>과 같은 영화는 조선의 패배가 명백했던 임진왜란을 둘러싼 우리 역사의 어떤 부분을 조명하고 있는가?

바로 한국인들의 민족적 자존심이 짓밟혔던 사실, 그리고 그 수치심이 무려 400여 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이 수치심이 그토록 긴 시간 연장될 수 있었던 것은 20세기 초 재개된 일본의 침략, 즉 일제강점기의 기억 때문이다.

한산도 해전, 명량해전, 노량해전 등 이순신 장군이 커다란 승리를 거둔 전투들은 임진왜란 당시 전체 전환의 암담함 때문에 더욱 빛을 발한다. 그래서 '대첩'이라는 명칭이

붙는다. 도저히 판을 뒤집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대승을 거뒀기에 대첩이라는 칭송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화 <명량>과 <한산: 용의 출현>에 표현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신격화에 가까운 존경심은 순수하게 한 위대한 군사 지도자를 기리려는 것이라기보다, 한국인의 상처입은 자존심과 서글픈 감정을 어떻게든 달래 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래서 임진왜란 전체의 실상은 외면한 채, 가까스로 승리를 거둔 장면만 거둬내세우는 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민족적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역사의 국소적인 부분만 바라보는 태도, 특히 성공과 승리의 장면들만 바라보려는 태도는 해당 민족의 역사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전반적으로 성공과 승리보다는 고난, 실패, 역경, 그리고 불신앙으로 가득차 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하심 아래 평안과 번영을 누렸던 시기는 지극히 짧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기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초래된 저주와 고난의 세월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나 성경 기자들은 조상들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쳐다보기조차 괴로운 행적을 있는 그대로 적어 대대로 전수되도록 했다. 왜냐하면 사실과 다르게 미화된 역사는 역사적 현실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역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한산: 용의 출현>이 <명량>에 비해 신파적 요소를 훨씬 줄이고 전투의 역사적 실상에 주력한 점은 분명 좋은 평가를 받을만한 연출 방향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첩'에만 몰두하는 역사적 태도는 한국 영화가 비틀린 민족주의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우리의 온전한 역사인식에 결코 유익할 것이 없는 태도이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 교수)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해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망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L FLEXIBLE LIFE INSURANCE						
Amount	\$300,000		\$500,000		\$1,000,000		Amount	\$100,000		\$300,000		\$5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Ag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30yr	\$17	\$20	\$25	\$30	\$45	\$54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24	\$30	\$36	\$46	\$67	\$86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43	\$60	\$68	\$97	\$131	\$188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보험자 Rate 월 보험금/나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금 산출이 다를 수 있음) (월자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oewer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collisioncenter.com

3시간 사고당량에 연우시작 1시간이 무료입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찜닭, 오징어, 수박,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선교적 교회 회복을 위한

WE BRIDGE CONFERENCE

주제: 예배 회복과 선교적 삶으로의 결단

@ 토렌스 조은교회 | SEPT. 26th-28th



메인강사: 권준목사

We Bridge는?

- 주님의 교회들을 하나로 잇는 공간
- 예배의 회복과 건강한 교회 성장을 함께 돕는 모임
- 연합과 동역을 통해 세상을 살릴 교회의 사명을 결단하는 시간

참가 자격

- 예배인원 30명 이하 교회의 담임목회자 및 사모, 연령 59세 미만
- 개척 혹은 설립한지 10년 미만의 교회
- 자체 건물이 없는 렌트 교회로 지금도 예배를 유지하고 있는 건강한 교단의 교회
- 현재 외부 재정 후원이 없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 컨퍼런스 참가교회에 한하여 2023년 1월부터 매월 \$500불씩 3년간 재정 지원
- 컨퍼런스 후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 지원

숙소:

SONESTA ES SUITES
TORRANCE REDONDO BEACH

설교자:

권준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김경진목사, 김우준목사,
오명찬목사, 고승희목사

특강 강사:

이상명 총장, 이상훈 총장,
김섭리 목사, 정한나 사모,
최은희 강사, 존치 목사, 송정명 목사

기획 / 예배 찬양:

ONEHEART WORSHIP



SCAN ME!

컨퍼런스 신청은
구글폼을 작성해
주시기바랍니다.



WE BRIDGE
CHURCH TO CHURCH

☎ 213.739.0403

✉ webridgeinfo@gmail.com

기획: Oneheart Ministry | 주관: 기독교일보, ING, CBS

후원: We Bridge 후원 교회, 한국 해민병원, PRO-Z USA, DB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미성대학교

등록 마감
8월 25일

컨퍼런스 등록교회 중
50개 교회 선정 후 개별 통보